

## 늘품약사회 제13회 오픈늘품(2018.11) 강연록

### [대한약사회 선거맞이 긴급 대수다회]

작성자: 김민경

올해는 3년마다 시행하는 대한약사회 선거가 있는 해이다. 하지만 자신이 이번 선거의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약사들도 많다. 이번 오픈늘품에서는 2018 대한약사회 선거에 맞추어 대한약사회에 대해서 알아보고 나아가 비교적 잘 운영되고 있는 캐나다 약사회를 함께 살펴 보며 대한약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보았다.



### 2018 대한약사회 선거

대한약사회는 약사법 제11조 1항에 따라 약사에 관한 연구와 약사윤리의 확립, 약사의 권익 증진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되었다. 16개의 지부, 5개의 해외특별지부, 225개의 분회로 이루어진 대한약사회는 회장, 이사회, 상임이사회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자세한 기구표는 대한약사회 홈페이지(<http://www.kpanet.or.kr/main.jsp>)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약사면허를 취득한 자라면 모두 대한약사회의 회원이 되고 신상신고, 회비납부, 연수교육 이수등을 회원의 의무로 삼고 있으며 의무를 불이행할 시에는 선거권, 피선거권을 얻지 못하게 된다. 신상신고회비 및 기타회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6년도 신상신고회비 및 기타회비 총괄내역					
과 목	구 분	지 분 회 비			비 고
		대약	지부	분회	
신상신고회비 (연회비)	면허사용(갑)	210,000	130,000	분회결정	면허사용(갑) 5만원 인상
	면허사용(을)	120,000	100,000	"	면허사용(을) 4만원 인상
	면허사용(병)	50,000	25,000	25,000	면허사용(을) 2만원 인상
	면허미사용자	20,000	10,000	10,000	전년과 동일
약 바로쓰기운동기금	면허사용(갑),(을)	10,000			전년도와 동일
의약품정책연구소 지원금	면허사용(갑),(을),(병)	10,000			전년도와 동일
	면허미사용				
약사전문인 배상책임보험	약국개설자, 약국근무약사	10,000			3천원인상
대한약사회 장학기금	면허사용(갑),(을),(병)	3,000			
이웃돕기성금	신상신고 전회원		3,000		전년도와 동일
마약퇴치성금	신상신고 전회원		10,000		전년도와 동일
※ 지부·분회 조직운영 및 회비관리규정 제26조 [연회비] 제2항에 의거 <input type="checkbox"/> 면허사용자(갑): 약국개설자, 도매업 경영자, 제약업 수출입업·동물약품 취급경영자 및 관리약사 <input type="checkbox"/> 면허사용자(을): 약국 근무약사, 생산업체·수출입업체 근무약사, 도매업 관리 및 근무약사 <input type="checkbox"/> 면허사용자(병): 의료기관, 사회단체·국영기업·비의료의약품, 교육 또는 연구보건의 및 일반행정직 회원, 기타직 근무 회원 <input type="checkbox"/> 면허 미사용자: 미취업회원 <input type="checkbox"/> 회비 면제자: 65세이상 미취업회원 및 생활보호자, 군복무자·해외거주자					

그렇다면 대한약사회는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곳일까? 아래는 대한약사회의 주요 활동들이다.

- 1) 연수교육 대행
- 2) 정부와 공식적 약사 대표 협의체 (수가협상, 정책의견, 대관사업등)
- 3) 정책개발
- 4) 회원 친목 및 자선활동
- 5) 대국민 약사 홍보
- 6) 학술대회 및 학술강연
- 7) 약 바로쓰기 운동본부 등 대국민 교육사업
- 8) 회원 복지, 관리 (대한약사회지, 약화사고보험, 회원고충처리 등)

이와 같은 활동은 대한약사회는 약사의 권익을 지키고 교육을 통해 약사의 자질과 윤리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2018 대한약사회 선거에서는 대한약사회장과 지부장을 뽑는다. 임기는 3년이며 이번 선거는 2015년 이후로 3년만에 진행되는 선거이다. 투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되며 투표는 12월 13일까지 진행된다.

온라인(모바일)	
투표신청	11월 17일 ~ 11월 20일
온라인투표	12월 11일 ~ 12월 13일
오프라인(우편)	
투표용지 발송	12월 3일
투표용지 회송	12월 13일 까지

## 캐나다 약사회 뜯어보기

이어서 캐나다 약사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캐나다 약사회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신상신고에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신상신고가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잘 운영된다는 것은 약사들이 약사회를 신뢰하고 약사회 역시 그 기대에 맞추어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캐나다 약사회의 어떤 특별한 점이 약사들이 약사회에 신뢰를 가지게 만드는 것인지 캐나다 약사회 홈페이지(<https://www.pharmacists.ca>)를 통해 살펴보았다.

캐나다 약사회(Canadian Pharmacists Association; CPhA)는 약사들의 우수한 care를 통해 캐나다인들의 health와 well-being을 향상시키는 것에 목표를 둔다. 따라서 CPhA는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약사를 다방면에서 돕고 있다. CPhA의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다.

- 1) 약사회는 약사를 대변한다.
- 2) 약사가 국민 건강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실무역량을 향상시킨다.
- 3) 의약품 안전 및 품질개선 계획의 개발과 참여를 통해 의약품 시스템의 안전, 보안 및 무결성을 보호한다.
- 4) 약물 관리,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약사를 지원한다.
- 5) 캐나다인의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 다른 건강 관리 제공자 및 이해 관계자와 협력한다.
- 6)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물 사용과 최적의 약물 치료 결과를 지원할 수 있는 교육, 정보, 도구 및 자원의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면 여느 약사회와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홈페이지를 조금 더 살펴보면 CPhA가 목표를 세우고 실현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대표적으

로 CPhA가 2005년부터 실시한 Blueprint계획을 볼 수 있다. Blueprint계획은 약국 실무를 국민의 건강 관리에 최적화하기 위해 고안된 장기적인 계획으로 약국 부문을 단합시키고 미래의 약국에 대한 비전과 행동 계획을 수립하며 약사 및 약국 기수자가 올바른 지식, 기술, 자신감, 확대된 기회를 갖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8년에는 Vision for Pharmacy가 발표되고 여기서 강조된 5가지 핵심 전략 활동 영역에 대한 계획을 구현하기 위해서 실무 그룹이 구성되었다. 이후에는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진행되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모금을 하기도 했다. 그렇게 진행된 프로젝트는 병원 및 1차 진료환경에서의 실습교육 강화, 캐나다 약국 서비스 프레임 워크, 환자 기반 약사 상호 작용의 효과성 연구를 포함한 9가지 정도가 있으며 이에 대한 계획이나 진행결과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BLUEPRINT PHARMACY**  
Designing the Future Together

**OUR WAY FORWARD**  
Optimizing drug therapy outcomes for Canadians through patient-centred care

**CONFIRMING OUR COURSE:  
10 PRIORITIES FOR ACTION**

To continue our progress, we need to focus our energy and resources on 10 strategic priorities to respond to the needs and threats. We must:

- Pharmacy Human Resources**
  - Track and forecast pharmacy human resources requirements
  - Facilitate integration of regulated pharmacy technicians into community pharmacy
- Education and 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 Enhance accessibility to, and the quality of academic program experiential education in hospitals, primary care clinics, and community pharmacy settings
  - Enhance the CPD opportunities for pharmacists and pharmacy technicians in providing patient-centred care and expanded services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 Support the rollout of pan-Canadian clinical decision support software
  - Facilitate integration of e-prescribing and DIS into community and hospital pharmacies
- Financial viability and sustainability**
  - Undertake a national public relations campaign about the value of pharmacy services
  - Facilitate uptake of community pharmacy business models that incorporate new patient care services
  - Create, acquire and disseminate valid and reliable assessments of the value of pharmacy services
- Legislation regulation and liability**
  - Support legislative and regulatory changes to expand scope of practice for pharmacists and pharmacy technicians

Secretariat for the Blueprint for Pharmacy National Coordinating Office June 2013

Blueprint계획에 의해 2013년에 발행된 'OUR WAY FORWARD'는 비전을 위한 10가지 우선순위가 제시되어있다. [출처: CphA 홈페이지]

또한 CPhA는 약사뿐 아니라 국민에게도 직접 메시지를 전달한다. 현재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 다양한 소셜미디어 운영을 통해 국민들과 소통하고 있으며 동영상이나 포스터를 제작하여 제공함으로써 건강에 대한 지식을 알기 쉽게 전달하고 약사의 역할에 대해서도 알리고 있다. ISMP(Institute for Safe Medication Practices Canada)와 함께 '5 questions to ask about your medications'을 만들어서 국민들이 수동적으로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 5 QUESTIONS TO ASK ABOUT YOUR MEDICATIONS when you see your doctor, nurse, or pharmacist.

## 1. CHANGES?

Have any medications been added, stopped or changed, and why?

## 2. CONTINUE?

What medications do I need to keep taking, and why?

## 3. PROPER USE?

How do I take my medications, and for how long?

## 4. MONITOR?

How will I know if my medication is working, and what side effects do I watch for?

## 5. FOLLOW-UP?

Do I need any tests and when do I book my next vis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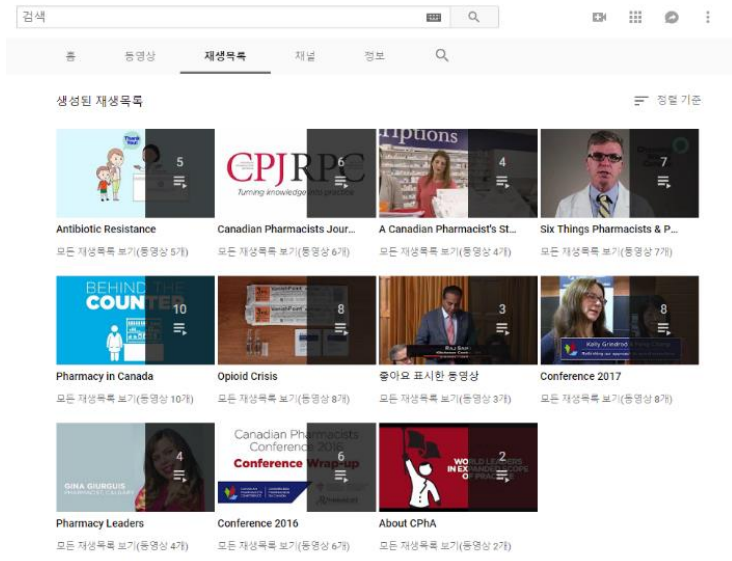


Keep your medication record up to date.

Remember to include:

- ✓ drug allergies
- ✓ vitamins and minerals
- ✓ herbal/natural products
- ✓ all medications including non-prescription products

Ask your doctor, nurse or pharmacist to review all your medications to see if any can be stopped or reduced.



ISMP와 함께 제작한 포스터와 CPhA의 youtube 페이지. [출처: CPhA facebook /youtube]

다음으로 주목할 만한 부분은 교육부분이다. CPhA는 약사의 재교육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만큼 다양한 지식을 제공한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약물 및 치료제품에 대한 최신정보를 CPhA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치료 선택에 대한 정보와 약물 및 치료 솔루션 등을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제공 받을 수 있다. 또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전문성개발을 돕고 있으며 온라인 강의와 환자를 대하는 가이드 라인 등을 제시해 주고 있다. 여기서 약물에 대한 교육, 정보 뿐만 아니라 환자를 대하는 방법까지 폭넓은 자료의 신뢰할 수 있는 출처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CPhA의 정부와의 의사소통도 눈여겨 봐야할 부분이다. CPhA는 정책결정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러가지 정책문제에 대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수립하고 국가에 제출하여 주장을 확실하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제출자료들을 홈페이지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CPhA에서는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연구의 결과를 제공하며 정책에 대한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주장한다.

캐나다 약사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캐나다 약사회 운영 방식을 엿볼 수 있었다. 약사만을 위한 약사회가 아닌 국민의 건강과 국가의 미래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 인상깊었고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다양한 자료에서 정책에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캐나다약사회의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또한 캐나다 약사회는 다양하고 높은 수준의 교육을 제공하여 약사들의 재교육에 힘쓰고 있었다. 캐나다와 한국은 사회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직접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 하지만 잘 운영되고 있는 약사회의 예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분명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번 오픈놀픔은 약사회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대한 약사회가, 약사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